

## ◆ 여자와 용의 싸움 2◆

요한계시록 12:1-6

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 [서론]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중요성에 비해 몇 절 안된다. 1절부터 4절에는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으려 애쓰는 여자,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용과의 싸움이다.

12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5절은 신약 사복음서 전체에 담긴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나타나고, 6절은 여자가 해산한 아이를 머리로 하는 신약교회가 탄생하였으며,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으로 일어난 영계의 큰 변화와 이 전쟁에서 패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내용이고, 13절부터 16절은 구약 광야교회 사건을 배경으로 신약의 교회가 용의 극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마지막 17절은 재림 직전에 있을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마지막 때의 성도들과 용과의 최후의 결전이 담겨져 있다.

결국 인류역사의 영적배경은 ① \_\_\_\_\_ 와 \_\_\_\_\_ 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와 붉은 용의 싸움이다.

[본론]

이 싸움을 푸는 열쇠 두 개를 살펴보자.

첫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여자가 낳을 아이, ② \_\_\_\_\_ 가 와서 할 일이 드러난다.



둘째, “③ \_\_\_\_\_ 과 ④ \_\_\_\_\_ 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1:1)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드러났다. 그래서 용은 바로(창 12장)와 아비멜렉(창 20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메시아의 계보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몸을 더럽혀 무산케 하려 했다. 사단은 아기(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마 1:1) 오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라의 나이 65세가 넘었다. 제 아무리 외국 여성이 예뻐보여도 한 나라의 왕이 무엇이 아쉬워 이토록 나이 든 여자를 취하려 했겠는가? 아브라함의 인간적 실수와 허물 때문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메시아 오시는 길이 보전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다.(삼상 18, 19장) 이 외에도 유다 왕국의 황후 아달라가 유다 왕통의 씨를 진멸코자 하였다.(역하 22, 23장) 하마터면 아이의 출산이 무산될 뻔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다. 감당키 어려운 때에는 도처에 감춰 놓으신 '천사'들을 통해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 1:1) 이 ⑤ \_\_\_\_\_ 대로 결국 메시아가 오셨다. 붉은 용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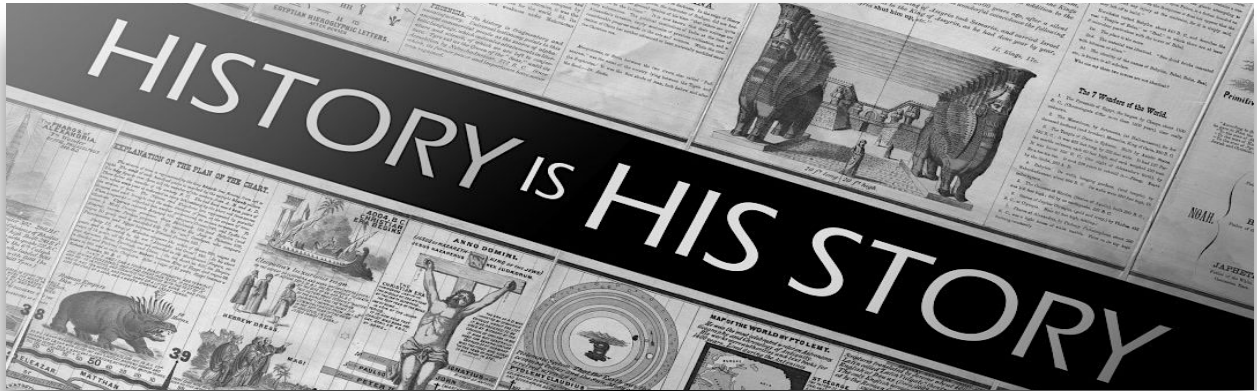
$5+7=12 > 6$



성경에 나타난 상징 수인 하나님이 7이라면 용, 사단, 마귀, 옛 뱀은 6, 인간은 5다. 5가 6을 이길 수 없듯이, 6 또한 7을 이길 수 없다. 가장 가깝기는 **하지만 5가 6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⑥ \_\_\_\_\_ 과 한편이 되는 것이다.** 5+7=12가 되어 6을 상대로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⑦ \_\_\_\_\_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결론]

역사는 영어로 History다. **His Story**의 합성이다. 즉 그 엄청난 붉은 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도 역사 속에 현존하시고 섭리, 통치, 결국은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며, 그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일곱 머리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그의 열 뿔로 그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 온갖 방해 공작을 한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얻게 되며, 구원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의 어떤 공격과 방해도 모두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프라미스 성도가 되자.

## [적용과 기도]

❖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싸움이 아니라(엡 6:12)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달은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 그동안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노력은 무엇이었나요?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심을 믿습니까?
- 혹 매일의 삶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법을 알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나의 삶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His Story를 써내려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